



다시 한번 '인간 승리' 이세돌의 78수에 'AI 한돌' 와르르

알파고 잡은 '신의 한 수' 78수... 한돌에도 통했다 이세돌 반격에 흔들리며 '장문'도 모른 채 요석 잡혀

인공지능(AI)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구축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다.

프로기사에서 은퇴한 이세돌(사진)은 18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사육에서 열린 NHN의 바둑 인공지능 한돌과 '바디프랜드 브레인마사지배 이세돌 vs 한돌' 치수고치기 3경기 제1국에서 92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다.

2016년 3월 구글이 야심 차게 준비한 '알파고'와 대결에서 1승 4패를 기록, 인공지능을 상대로 유일하게 승리한 '인류'인 이세돌은 3년 만에 인공지능과 대결에서 다시 승리했다.

호선으로 맞붙었던 알파고와의 대결과 달리 이날 대국은 이세돌이 2점

을 간 상태에서 덤 7집 반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만큼 인공지능의 우세를 인정하는 수치다.

핸디캡 탓에 불리하게 출발한 AI 한돌은 중반 전투에서 이세돌의 흑돌을 압박하며 조금씩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돌은 흑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웬만한 프로기사라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를 저질러 승부가 단명국으로 끝났다.

25년간의 프로기사 생활을 하면서 처음 2점을 깬 이세돌은 이날 3귀를 차지하면서 차분하게 출발했다.

포석을 마친 뒤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우변에서 첫 번째 승부처가 발

생했다. 이세돌은 우변 자신의 돌을 돌보는 대신 상변에 집을 마련했고 한돌은 우변 흑돌을 둘러싸고 공격에 들어갔다.

만약 이세돌의 흑돌이 죽거나, 살더라도 큰 손해를 본다면 단숨에 형세가 뒤집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흑돌을 공격하던 한돌이 큰 착각을 일으켰다.

이세돌은 78수로 흑을 공격하던 백 3점에 역수를 가했다.

78수는 3년 전 이세돌이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제4국에서 버그를 유도해 '신의 한 수'라고 불렀던 수다.

이세돌은 한돌을 상대로도 78수에 좋은 수법을 구사했고 이후 한돌은 큰 착각을 일으키며 자멸했다.

한돌은 이세돌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버그를 일으킨 듯 자신의 돌이 잡히는 '장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오히려 공격하던 요석 3점이 죽고 말았다.

이날 불리한 핸디캡으로 시작한 한돌은 대국 초반 승률 10% 안팎에서 출발했으나 우변 흑돌을 공격하면서 30%대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3점이 잡히는 순간 승률이 3~4%대로 폭락했고 더는 대국을 이어가지 못했다.

'AI 한돌' 개발사인 NHN은 대국 후 "이세돌의 78수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말한 반면 이세돌은 "78수는 프로라던 단연히 그렇게 두는 수"라고 밝혔다.

치수 고치기 3경기 첫판에서 승리한 이세돌은 19일 열리는 제2국에서는 핸디캡 없이 한돌과 호선으로 대결한다.

이세돌은 제1국 승리로 기본 대국료 1억5000만원과 승리 수당 5000만원 등 2억원의 상금을 챙겼다. 연합뉴스



강원도 춘천에서 열리는 KWBL 휠체어농구리그 챔피언 결정전에 참가하는 제주 선수단. 사진=제주도장애인농구협회 제공

제주 휠체어농구, 리그 왕좌 도전

KWBL 휠체어농구리그 챔피언 결정전서 서울시청 농구단과 맞대결... '우승 목표'

제주특별자치도 휠체어농구단(단장 부형중, 이하 제주)이 리그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마지막 승부에 나선다.

18일 제주도장애인농구협회에 따르면 제주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춘천시 호반체육관에서 열리는 KWBL 휠체어농구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서울시청 농구단과 맞붙는다. (사)한국휠체어농구연맹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서 제주는 리그 2위로 결승에 올랐다.

시작은 불안했다. 제주는 지난 9월 21일 막을 연 리그 1라운드 개막전에서 주전 선수의 부상으로 1승 2패에 머물며 2라운드까지 전체 4위에 그쳤지만 3라운드부터 반전을 꾀했다. 팀의 중심 선수들의 공백이 채워지면서 4연승을 기록했고, 끝내 결승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서울시청과의 마지막 경기에는 전경민과 황우성, 김호웅, 김동현, 송창현이 호흡을 맞춘다.

제주는 승리의 기세를 이어 리드 정상에 오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부형중 단장은 "선수관에서 열리는 KWBL 휠체어농구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서울시청 농구단과 맞붙는다. (사)한국휠체어농구연맹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서 제주는 리그 2위로 결승에 올랐다. 팀의 센터를 맡고 있는 김동현 선수도 "챔피언에 올랐을 만큼 당연히 우승 달성이 목표"라며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최고의 경기를 펼쳐 우승의 미를 거두겠다"고 했다. 김지은기자

'2년 최대 1100만달러' 김광현 세인트루이스 행



등 번호 33 달고 선발 경쟁 가세... "주어진 역할 충실" 'Thank You SK' 팻말로 전 소속팀에 고마움 전제

김광현(31·사진)이 등 번호 33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유니폼을 입고 밝게 웃었다.

대한민국 좌완 에이스 김광현이 미국 메이저리그(MLB) 진출의 꿈을 이룬 순간이다.

김광현은 1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구단 입단 기자회견에 주인공으로 참석했다. 세인트루이스 포스트-디스패치의 데릭 골드 기자는 "세인트루이스가

김광현과 2년 800만달러(약 93억 4000만원)에 계약했다"고 전했다.

인센티브도 있다. 디에슬레릭은 "김광현이 매년 인센티브로 150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광현 측도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김광현은 2년 최대 1100만달러(약 128억40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2016년 오승환이 세인트루이스에 입단할 때 한 계약(1+1년 최대 1100

만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광현은 한국에서 달던 29번이 아닌 33번을 달고 빅리그에 입성한다. 김광현에게 '3'은 삼진을 의미한다.

김광현은 "무척 기대가 되고, 떨린다. 2020년 시즌이 정말 저에게 중요한 시즌이 될 것이다"라며 "선발투수를 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팀에 필요한 위치에서, 필요한 선수가 되는 게 첫 번째 목표다. 팀에서 주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현은 준비한 'HELLO STL', 'THANK YOU SK'란 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장 분위기를 밝게 했다.

김광현을 품은 세인트루이스는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뉴욕 양키스(27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1차례 월드시리즈 정상을 밟은 명문 구단이다. 내셔널리그에선 월드시리즈 최다 우승 이력을 지녔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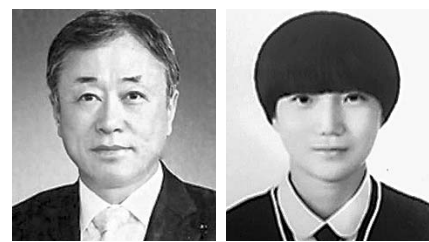
고동환 회장·박지현 제주시체육상 '대상'

2019 제주시 체육대상 시상식

고동환 제주시육상연맹 회장과 박지현(신성여자고등학교) 선수가 제주시체육 대상을 받았다.

제주시체육회는 18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2019 제주시 체육 대상 시상식 및 체육인의 밤'을 열고 제주시체육 발전에 노력한 체육인 35명(팀)에게 상을 전달했다.

제주시체육상 대상은 생활체육부문 고동환 제주시육상연맹 회장과 엘리트트루 박지현 선수가 수상했다. 고회장은 생활체육 중심으로 엘리트체육 학생 선수를 육성하면서 통합체육을 조화롭게 운영한 공을 인정 받았다. 박 선수는 올해 전국체전 멀리뛰



고동환 육상연맹 회장 신성여자 박지현 선수

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특별상은 제주도민체전 4관왕에 오른 오경순(삼도2동체육회)씨와 줄다리기경기에서 13년 연속 우승한 한리기를 줄다리기팀에게 돌아갔다.

제주시는 이날 생활체육과 경기, 공로, 심판, 지도, 학교체육 부문 등에서도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동행(재) 11:55 스포터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6: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꽃길만 걸어요(재) 9:40 무한리플 샐러드 10:40 지구촌 뉴스 11:00 99억의 여자(재)	6:00 MBC 뉴스투데이 6:25 MBC 뉴스투데이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나쁜 사랑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0 930 MBC 뉴스 9:45 기본 좋은 날 10:45 허지하는 인간들(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8:35 맛 좀 보실래요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30 고행이 보인다	7:30 브로콜리와 노래해요 8:00 당동맹 유치원 9:30 다류동화 달팽이 10:00 자식의 기쁨 13:55 발견의 기쁨 동대천방 15:25 트리푸들 15:55 슈퍼공룡파워 16:10 예술가 놀자 16:40 당동맹 친구들 17:20 워터지 유적비트 19:00 레이더버그와 블랙캣 20:30 자이언트 펭TV
12:00 KBS 뉴스 12 13:00 사랑의 가족 13:50 KBS 재난방송센터(재) 14:00 KBS 뉴스 14:10 취라기 캠프 14:25 출동! 애니멀 레스큐 14:40 영동발달 공순이와 친구들 시즌5 14:55 숲 속 친구 스토리즈 15: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16:00 시사간전 17:00 KBS 뉴스 17:30 동물의 왕국	12:10 유아한 모녀(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15:30 TV 유치원 16:00 누가 누가 잘하나 17:00 뜻밖V 17:15 핑크퐁 윈다스타 17:30 주간연예수첩	12:00 12 MBC 뉴스 12:20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13:20 푸러기 식사교실(재)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호기심대장 카로 15:55 두 번은 없다(재) 17:00 5 MBC 뉴스 17:25 지치분권으로 꿈꾸다	12:00 SBS 12뉴스 12:10 굿바이 이세돌! 이세돌 vs 한돌 1부 13:30 12:10 굿바이 이세돌! 이세돌 vs 한돌 2부 16:00 최강 1교시 17:00 SBS 오승수 17:45 JIBS 뉴스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30 김현철의 뉴스쇼 9:05 그대창가에 이한철입니다! 12:00 CBS 낮종합뉴스 12:05 창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0 시사주간지 정관동입니다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영경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7 오늘 제주 19:40 한국인의 밥상 20:30 꽃길만 걸어요 21:00 KBS 뉴스 9 22:00 다류 인사이드 22:55 더 라이브 23:35 스포터 23:40 송년기획 KBS 네트워크 특선 올댓유지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유아한 모녀 20:30 글로벌24 20:55 제보자들 22:00 99억의 여자 22:35 99억의 여자 23:10 해피투게더	18:25 데미지행 길 19:30 MBC 뉴스데스크 20:55 허지하는 인간들 21:30 허지하는 인간들 22:05 다류에세이 그사람 23:05 제주MBC 시사간전	18:00 행복실제 앞잡배기 19:00 JIBS 특집대담 IB 총재에게 듣는다 20: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부 21:3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부 22:00 맛남의 광장 1부 22:40 맛남의 광장 2부 23:10 맛남의 광장 3부 23:50 걸속! 무비월드 스페셜	KCTV 7:00 KCTV 뉴스 8:00 대한민국 구석구석 10:30 웰컴 투 지하상가 12:40 KCTV 세네한수 13:10 열마에요 14:00 취미로 먹고 산다 15:10 제주4.3평화합창단 17:40 KCTV 시청자세상 18:30 웰컴 투 지하상가 19:00 KCTV 뉴스7 20:00 제주4.3평화합창단 21:00 KCTV 종합뉴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 KBS ☎ 064-740-7331 / ☎ MBC ☎ 064-740-2432 / ☎ JIBS ☎ 064-740-7800 / ☎ KCTV ☎ 064-741-7723 / ☎ 제주CBS ☎ 064-748-7400				

오늘의 운세 19일

김홍상 지단(해)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자녀의 집을 방문하거나 갈 곳이 생긴다. 48년 독선적이나 자만은 금물. 주변의 지해를 얻어서 추진하라. 60년 자녀의 진로로 동봉서주. 자금이 지출된다. 72년 자녀에 대한 기쁨이 생긴다. 취업이 필요 시 동북간 길 방향이다. 84년 외출이나 모임이 있다. 이성교제는 있어도 내 맘을 채워주지 못한다.

42년 술과 연인이 많으니 운전 삼가. 54년 부부간 사소한 논쟁이 다툼으로 변진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은 삼가. 66년 문서운이 길하고 재물운이 있으니 계약, 매매, 인허가, 승인 관련 실적이 있다. 78년 금전상 이득이 있는 날. 미혼자는 지출이 커진다. 90년 친구와 다양한 대화와 생기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37년 마음이 먼저 분주하고 할 일은 결과를 맺지 못한다. 주변의 협력을 얻어라. 40년 이동 이사가 있거나 변화가 생긴다. 부부간 언행자제 필요. 61년 경쟁심리는 또 다른 스트레스를 만든다. 피할 수 없다면 침착하게 대처하라. 73년 취업, 승진, 합격, 승인, 계약의 기쁨이 있다. 85년 나를 필요로 하면 봉사하라.

43년 입부추진이 서서히 해결되니 대인관계에 만전을 기하라. 55년 동업이나 창업에 하려는 마음은 강하나 차분한 계획과 점검이 선행. 67년 돈 걱정, 자식걱정으로 피곤하고 몸살기운이 있다. 79년 취업에 대한 갈등과 변화로 고민. 주변의 협조를 구하라. 91년 화남은 내게 해가 되니 건강관리에 우선하라.

38년 몸이 나른해진다. 의욕을 갖고 건강관리에 유념하라. 50년 답답하고 신경이 예민해진다. 한 발 뒤에서 내일을 계획, 준비함이 필요. 62년 자식에 대한 일, 가족간 의논할 일이 생긴다. 74년 대담하게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86년 할 일이 늘어나고 취업이나 학업의 기쁨이 있다.

44년 의외로 일이 풀리거나 협조를 받는다. 매마나게 두 체분시 해결된다. 56년 자식문제도 가장불화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직장 업무로 스트레스. 68년 과다한 기대나 언동은 금물. 신중할 필요하고 기대하지 마라. 80년 동료나 친구, 형제자매와 언쟁이 있고 다툼이 생긴다. 92년 원칙에 충실하면 인정 받는다.

39년 갈 곳이 많고 재물지출이 많다. 필요한 돈만 지참할 것. 51년 집안에 각경이 생기고 안부전화를 드리면 좋다. 63년 귀인 도움으로 일은 해결된다. 부부 애정 적신호. 75년 강한 의욕으로 업무는 추진하지만, 대인관계나 이성교제는 올림을 하지마라. 87년 동료, 친구와 협력하면 좋은 방법과 대책이 떠오른다.

45년 농·수산업은 새벽부터 바쁜 일과 계약일이 있다. 57년 정도를 지켜 나가면 명예나 부가 따르고 주위로부터 인정 받는다. 69년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따른다.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라. 81년 부모님, 뒷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익이 발생한다. 93년 운이 호조되고 몸이 분주하나 건강은 유의.

40년 자녀의 일로 고민 상의가 이루어지고, 부부간 인정조심을 하라. 52년 갑작스런 소식에 놀람이 있고, 주변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 64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으니 여유와 휴식 필요. 76년 자식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라. 88년 스스로 자발적인 활동이나 일은 기쁨 2배, 성과의 효율성은 배가 된다.

46년 절도있는 행동과 인간관계에 너그러움이 필요하다. 58년 추진하는 일이 풀리고 의욕고취, 직장인은 대인관계에 중점을 뒤라. 70년 계획하는 일이 순조롭고 의욕도 강해진다. 82년 친구나 경쟁 또는 경쟁하면 상대에게 패하거나 친구가 아주 밀어진다. 94년 구매충동이 생기고 외출할 일이 생긴다.

41년 주변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청하라. 53년 문서에 관한 소식이 오거나 약속이 정해진다. 계약은 유리하다. 65년 농·수산업분야 아침부터 분주해진다. 77년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아름답다. 철저한 계획과 추진력이 필요. 89년 작은 일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한단계씩 밟고 올라가는 것이 좋다.

47년 자녀가 소식을 전해오고 용돈이 생기는 날. 59년 친목 또는 모임이 생긴다. 귀가는 늦지 말 것. 읊 주는 자체가 중요하다. 71년 집안 어른께 우환이 올 수 있으니 방문 또는 전화로 드려라. 83년 부모님과 상의할 일이 생기고 기쁨도 있다. 이성교제 길. 95년 상대자와 언쟁이나 다툼은 피할 것. 자랑하는 일은 불리.